

한국 청소년 야구 및 축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 정 근 (호서대학교)

I. 서 론

국내 스포츠 종목 중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야구와 축구를 들 수 있다. 월드컵 4강이라는 축구 대표팀의 기적에 가까운 선전과 월드클래식베이스볼과 북경을 림픽에서 보여준 야구대표팀의 선전은 국내 최고의 인기스포츠로 자리 잡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두 종목의 국내도입과 발전과정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축구는 1904년 서울관립외국어학교에서, 야구는 1905년 황성기숙청년회(YMCA)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최초대회도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1921년 제1기 전조선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면서 야구는 1982년, 축구는 1983년에 프로로 출범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야구 및 축구 종목이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해진 현안 문제점이 많이 산적해 있으며 그것을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다. 특히 야구는 축구보다 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야구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여 향후 성인야구, 즉 대학과 프로야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야구는 축구의 인기에 눌려 매년 몇 개 팀이 해체되고 협회차원에서 야구용품 지원해도 사용할 선수가 없는 실정이며, 장래 프로선수들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선수층이 두텁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 낮은 선수층으로 인해 프로야구에 심각한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 축구에 비해 야구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국에는 규격 축구장이 250개가 넘고 야구장은 고작 30개 정도이며, 축구의 경우 2010년까지 1000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2005년 학교축구 선수가 1만7천여 명임에 비해 학교야구 선수는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축구에 비해 야구의 토양이 얼마나 척박한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물론 축구에서도 학원 축구의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대로 된 잔디구장 없이 아직도 맨땅에서 시합을 하는 축구 환경을 걱정하기도 하고, 특기생제도로 인해 학원스포츠가 병들어간다면 서 제도를 걱정하기도 한다.

야구에서, 가까운 일본와의 팀 수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일본의 경우는 청소년 야구팀이 약 4천 5백여 팀, 고등학교 야구팀도 450개에 이른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2006년 12월 현재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 활동 중인 팀은 19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팀당 선수가 고작 12명-1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2007년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초등학교 야구팀 수는 100여개, 선수 수는 1800여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유소년 야구선수는 약 10만 명에 이르고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1만 명이 넘는다.

국내 야구와 축구는 선수, 시설, 수준 높은 관중의 저변, 제도 등은 미국, 일본, 유럽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이러한 요인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소년 야구 및 축구 저변과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업 중심 사회에서, 특히 저출산 시대에 1가정 1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학업보다 운동을 우선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유소년 야구 및 축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정부, 프로구단, 학부모 등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학교체육정상화 방안에 관해 많은 논의(강신복, 2003; 류태호, 2003; 박정근, 2003, 2004; 조선일보, 2008)가 있었지만 학교체육정상화 개선은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학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구부터 먼저 활성화 및 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200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학생선수는 운동만 하고 일반학생은 공부만 하는'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학원축구 개혁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전국대회 폐지하고 지역별 주말리그제로 전면 전환, ②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회문호 개방, ③ 공부

와 운동 병행으로 축구저변확대 및 학습권 강화, ④ Home & Away 방식으로 경기력과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⑤사업추진 조직위원회 구성 및 대회규정 마련, ⑥ 교육·홍보 강화 및 인프라 구축(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2008).

그러므로 학교정상화 방안에 근거해서 이러한 유소년 스포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유소년 스포츠에 가장 인기 있는 야구와 축구를 선택해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야구와 축구 유소년 팀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육성방안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소년 야구, 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또한 두 인기종목의 유소년 스포츠를 분석해서 비인기종목들이 처해져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목적적 표집으로서 연구대상자로 야구, 축구 관계자(종목별 지도자 2명, 협회관계자 2명, 교육청관계자 2명, 선수 2명, 학부모 2명씩) 20명을 선정하여 현안문제와 대책을 조사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소년 야구와 축구의 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방형-폐쇄형 질문지(Open & Closed Questionnaire)를 제작하였다. 주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은 박정근(2004)의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

를 위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만든 항목으로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책, 체육특기생 제도개선과 같은 행정제도개선, 대회방식 제도개선, 정상수업 강화, 주변확대, 시설 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심층면접, 문헌연구, 세미나 및 회의 자료를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유소년 야구, 축구종목의 실태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선 학교 및 클럽을 방문해서 현장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의 미팅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종 체육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의 신뢰성 있는 정보, 각종 관련 문헌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자료를 사용해서 수집하였다. 첫째, 현행 야구 및 축구 유소년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도자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문헌(홈페이지, 세미나자료 포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질문, 심층 면접,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할 때는 연구목적에 면접 대상자들에게 설명하고 녹음기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면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제작한 면접 안내지침을 사용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은 순서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절차는 50-60분 정도 걸리고 녹음기로 인터뷰를 녹음하였다. 셋째, 보다 폭넓은 프로그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야구 및 축구팀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관련종목 심층회의에 참석해서 나온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야구는 2007년-2008년 한국야구발전연구원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발전방안과, 축구는 2008년 학원축구활성화 TF팀으로서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잘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 유소년 스포츠클럽과 유소년 야구, 축구 클럽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클럽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수선수의 선발과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서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유소년 야구 및 축구 실태 분석, 해외 유소년 야구 및 축구 실태 분석, 그리고 야구 및 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로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1. 국내 유소년 야구 및 축구 실태 분석

현재 유소년 야구를 위한 예산과 시설적인 측면이 축구보다 훨씬 심각하다. 야구 예산편성 및 집행을 살펴보면 축구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소년 야구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KBO 육성위원회의 1년 예산은 14억원으로 육성위원회가 초등학교와 리틀야구단 140개 팀에 매년 500만원씩 7억원을 야구용품 지원비로 지원하고 있다.

축구는 2006년 기준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육성 관련 예산 규모가 64억9300만원이다. 시설 측면도 축구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다. 한강시민공원 어린이 야구장도 성인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시설활용이 어렵게 되고 있고, 동부리틀야구단도 응봉역 옆 어린이 야구장에서 연습을 했지만,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운동장을 빼앗겨 현재 그 옆 축구장에서 임시로 연습을 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도 안전문제로 야구팀에는

잘 빌려주지를 않는다(김종, 이광환, 정원동, 박기철, 박철호, 손환, 전용배, 이태일, 2007).

이광환(2006) 전 한국야구위원회 육성위원장의 한국 유소년야구 현황파악 및 육성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학부모 경제적 부담, 장래 불확실, 심판판정 비리, 학교당국의 이해부족(전체교직원의 80%를 넘는 여교사들의 반대), 감독들의 자질 미흡 및 생계문제, TV 홍보 미흡, 유소년야구장 절대 부족을 유소년야구 발전에 문제로 제기하였다. 육성방안으로는 일선 지도자 및 팀 대표자 격려/표창, 전국 초등학교 전체 팀 참가대회 신설, 유소년 야구 공인구 및 규칙 통일, 선수보호를 위한 투수들의 투구수 제한 및 변화구 사용 금지, 지역리그제 운영, 프로야구단의 연고지역 유소년 야구에 관심과 애정 필요, 지도자교육의 필요성, 장충동 리틀야구장 야간경기 거행할 수 있게 예산확보,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품지원 개선, 프로야구 스타급 선수들의 비시즌 유소년 야구팀 방문 및 싸인회 의무적으로 실시, 티볼 적극 장려, 소도시 지방야구장에서의 프로야구경기 개최, 지자체 지원, 원로 야구인의 활용 방안 모색, 야구를 사랑하는 사회각계 저명인사 영입, 선수협의회와 화합하여 유소년야구 발전 공동노력, 장기적 마스트플랜 확립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축구현황을 살펴보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축구팀은 511개(초221, 중171, 고1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유·청소년 클럽팀은 829개(초686, 중90, 고53), 학교 스포츠 클럽팀은 5,765개(초2,629, 중1,877, 고1,259)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08). 전국대회는 13개의 대회(남자대회 9, 여자대회 7개)로 3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합이 개최되며 짧은 대회는 1주일간, 긴 대회는 보름간(동원컵 왕중왕전) 시합을 하게 된다.

한국 축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유소년 축구의 양적·질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양적인 팽창은 저변확대를 의미하며, 질적인 팽창은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의미한다. 저변확대 차원에서 보면, 일본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795,015명,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18,478명으로 일본과 한국의 등록선수 비율은 43:1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학원 시스템으로서는 양적팽창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양적팽창을 할 수 없다. 일본의 전례로 양적팽창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소년클럽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했다(대한축구협회, 2004).

국내의 유소년 축구 클럽은 거의 유명선수 출신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유명선수 출신 축구교실은 차범근, 이영무 축구교실 등 70개 교실에 이른다. 프로축구 구단들도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클럽 등록 허가과 함께 유소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계의 유소년 축구 발전 방안은 야구보다는 나은 듯 하다. 이를테면 2006년 유소년축구 지원금이 65억원이며 이 중 대한축구협회는 13%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시에 상암 경기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건설된 10개의 월드컵경기장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점과 이 때 확보한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해 천안, 목포, 그리고 창원에 3개의 축구센터(375억원) 건립, 14개의 축구공원(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기장군), 인천, 울산(울주군), 강릉, 가평, 청주, 익산, 서귀포, 경주, 포천)을 총예산 196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다.

국내 유소년 축구 운영 사례는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가 시행중인 학교-구단 연계 시스템은 선수의 소속은 학교지만 구단에서 모든 지원과 관리를 하며 훈련까지도 구단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울산 현대 유소년 시스템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호랑이 주니어 축구교실이다. 호랑이 주니어 축구 교실이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울산 현대 15세 미만 유소

년 팀인 현대중학교는 본격적으로 축구선수들을 육성하는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학교는 울산 현대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2006년부터 을신 현대 15세 미만 팀으로 편입되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현대중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은 대부분 울산 현대 18세 미만 유소년 팀인 현대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포항 스틸러스의 유소년 클럽 운영방법은 유소년클럽과 어린이축구교실로 나누어진다. 유소년클럽은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으로 포철동초, 포철중, 포철공고 축구부를 스틸러스 클럽 산하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포항지역 초등학교 6학년 이하(U-13) 어린이를 대상으로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다. 위 두 팀은 숙식비, 대회참가비, 전지훈련비, 프로출신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선수 지도, 전용버스 운행 등 모두 프로팀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 해외 유소년 야구 및 축구 실태 분석

해외 유소년 야구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소년 축구는 독일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하였다.

1) 일본

일본의 야구장수는 2006년 현재 총 310개이며, 스탠드가 없는 야구장은 제외되었다. 일본은 연식야구와 경식야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식야구의 초등학교 팀수가 14,988팀, 중,고등생팀이 5,269팀, 대학팀은 487(전문학교 216개팀 미포함), 사회인 야구팀은 37,273팀이 있고, 또한 실버 야구단은 349개팀이 있다. 경식야구팀은 초등학교 400개팀, 사회인 야구팀이 350개팀이 있다. 일본은 은퇴선수들이 유소년 야구지원과 보급에 열성적이다. 대표적인 조직이 사단법인 전국야구진흥회로 일본프로야구 OB모임이다. 전국야구진흥회 활동은 야구교실, 강습회, 강연회, 전국아마추어야구지도자 강습회, 코치클리닉 등이다(김종 등, 2007).

2) 미국

미국 MLB는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Baseball Tomorrow Fund는 MLB와 선수간의 연합으로 펀드 프로그램, 필드 및 장비 구매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Boy & Girls Clubs of America는 1600만 달러의 직·간접적으로 유소년 클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Breaking Barriers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Pitch, Hit & Run은 7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이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투구, 타격, 달리기 등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RBI(Reviving Baseball in Inner Cities)는 유소년 야구의 소외 지역에 야구를 홍보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Rookie League는 12세 이하 유소년에게 야구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메이저리그와 Boy & Girls Club이 200개 이상의 루키 리그를 지원하고 있다. Urban Youth Academy는 지역 유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김종 등, 2007).

Arizona Diamondbacks와 LA 다저스 프로팀에서 유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rizona Diamondbacks는 1997년 Arizona Diamondbacks 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구장 건축 프로그램, 선수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Diamonds Back Field Building Program은 지역사회 비즈니스, 선수들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 22개 야구장을 짓거나 개보수 하였으며, 조명 시설, 전기 스코어보드, 펜스 교체, 잔디 관리 등을 해주고 있다.

Pinch Hitter Fund는 유소년 야구와 소프트볼 장비 제공, 손상된 시설, 유니폼 등을 제공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Play Ball Scholarship Fund는 유소년 야구와 소프트볼 선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김종 등, 2007).

LA다저스는 1998년 기금활동의 하나로 비영리 공

익재단인 “Dodgers Dream Foundation”을 설립하여 75달러 이상을 기부한 팬에게 야구공에 사인을 넣어 영구 전시한다. Jackie Robinson의 등번호를 딴 “Team 42” 장학 프로그램은 LA 지역 4년제 대학 학생들에게 매년 42개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Dodger Dream Fields는 LA지역 내 어린이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LA지역 내 8 곳에 어린이 야구장을 설치하였다. Dodgers Reading Dugout Program은 2001년부터 LA지역 내 초등학교에 1만 5000권의 책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이다(김중등, 2007).

3) 독일

1900년 라이프찌히에서 86개의 축구클럽이 모여 독일축구협회를 창설하였고, 102년이 지난 2002년도에는 26,306개의 축구클럽으로 성장하였다. 2002년도 축구클럽 회원 수는 6,264,497명, 분데스리그부터 유소년리그까지 166,214개의 팀이 시즌마다 리그에 참가하고 있고, 75,122명의 심판진이 리그에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축구는 독일 유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1,830,000명의 유소년이 축구클럽에 가입, 전체회원 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회원은 846,217명으로 전체회원 수의 약13%를 차지하고 있다(김홍남, 2003).

독일 축구협회에서는 축구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그리고 축구협회가 협력하여 중·장기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독일축구협회에서 2002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계획을 보면 27,000개의 축구클럽을 대상으로 390개의 트레이닝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평균 70개 축구클럽에 하나의 트레이닝센터가 있다. 매년 22,000명의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이 1,200명의 축구지도자로부터 트레이닝센터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 우수한 청소년 선수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지도

자 이외에 29명의 축구 전문가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각 지방 축구협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어 유소년 축구선수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 축구협회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매년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약 4,500개의 학교와 약 2,000개의 스포츠클럽이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결연관계를 맺은 학교와 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의 정규체육시간 외에 매주 마다 29,000명의 학생들 훈련을 돌보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있다(김홍남, 2003).

독일은 클럽리그부터 분데스리그까지 리그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성인클럽리그를 보면 분데스리그 1부(18개 팀), 분데스리그 2부(20개 팀), 2개의 지역리그, 주 리그, 군·읍·면 리그가 있다. 청소년 리그에는 6개의 리그가 있는데 각 리그는 연령에 따라 F리그(9세까지), E리그(10-11세), D리그(12-13세), C리그(14-15세), B리그(16-17세), A리그(18-19세까지), 19세 이상 선수들은 성인리그에서 활동한다. 각 리그의 팀 성적에 따라 상위리그와 하위리그의 팀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경쟁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 리그의 성적에 따라 분데스리그 1부 팀 16, 17, 18위 3개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지고, 2부 리그 1, 2, 3위 3개 팀이 분데스리그로 승격한다. 다른 리그도 분데스리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김홍남, 2003).

3. 유소년 야구 및 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포츠의 저변확대가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다. 입시제도 개선과 아울러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외국 선진 스포츠클럽과 국내 유소년클럽에서의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야구

및 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대회방식 제도개선(전국대회 폐지 및 지역리그제 실시)을 통한 정상수업 강화

전국대회 폐지와 지역 주말리그대회를 정착시킨다. 수업 결손과 고비용 유발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기존 전국 토너먼트 대회를 지역별 주말 리그대회로 전환시키고 주중에는 공부와 훈련을 하고 주말에 리그대회에 참가한다. 10-12개 학교로 지역리그제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라이벌 의식 유도하고 각 리그 우승팀 참가하는 학년말 전국 챔피언십을 개최하여 지역축제공화론으로 육성한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08).

야구도 역시, 토너먼트 시험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지역리그를 활성화 시킨다. 모든 경기는 전국을 16개 권역별로 나눠 지역리그전(홈-어웨이)으로 실시한다. 전국에 있는 야구장을 잘 활용하고 이번 축구활성화 사업을 기회로 야구장을 미리 많이 조성하여 지역리그전을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회방식 제도개선을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여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지·덕·체를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기는 야구 및 축구”에서 “즐기는 야구 및 축구”로 전환시켜, 선수와 일반 학생, 교사, 운동부 지도자가 함께 경기를 준비하고 즐기는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스포츠 분위기를 조성한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08).

2) 시설인프라 확충

야구장 시설 인프라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KBO, 대한야구협회, 프로구단, 생활체육협의회, 전·현직 선수, 교육기관, 학부모, 미디어 등의 친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야구장 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공원

에 간단한 백넷 설치, 고수부지의 사용하지 않는 땅 활용, 공설운동장, 학교운동장, 군부대 연병장 등을 야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리틀야구장은 서울 장충동 리틀야구장, 충남공주의 박찬호 리틀야구장, 대구 삼성리틀야구장, 포항 리틀야구장 4개가 있다. 2007년 7월 24일-8월 5일까지 KBO, 포항시, 대한야구협회의 공동주최로 “2007 KBO총재배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전국에서 136개 팀(초등 102, 리틀 34)이 참가하였다. 포항시의 경우 전국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하면서 리틀야구장을 건립하였다. 각 지자체에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리틀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에 운동장 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년 약100개의 초등학교에 운동장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국 초중고에 인조잔디구장 1000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08).

3) 저변확대

저변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는 종전 학교야구부 및 축구부 중심의 대회를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리틀야구클럽, 지역축구클럽도 대회 리그에 참여하는 선진시스템으로 도입한다. 야구 및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경기력 향상 및 야구 및 축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해마다 야구팀이 5-7팀이 해체되고 있다. 해체 이유는 교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학교예산마저 부족하여 교사들이 야구부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기적성, 운동부 지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 및 관련 예산 증액 및 확보, 둘째,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대책 강구, 셋째, 방과 후 훈

련을 위한 야간 조명 시설 및 전기료 보조,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안 해결 대책 강구를 위한 학부모 단체 결성이 필요하다(김중 등, 2007). 이런 모든 것들이 저변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4) 우수 지도자 육성

아마추어 지도자들에게 최저생활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들은 좋은 대우도 받지 못하고 거취도 불분명하다보니 자신감 있는 지도생활이 어렵고 그만큼 열의도 떨어진다.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우수 지도자를 확보해야 한다. 유소년의 특성상 초급 지도자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도자(심판)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효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 야구지도자학과와 축구지도자학과와 연계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교육과학기술부 등(2008)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축구협회 자체계획 하에 실기, 이론, 지도법 등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한다. 지도자 확보차원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교원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대상 지도자·심판 양성과정을 직무연수로 인정 검토(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방과후 학교의 축구프로그램, 축구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지도자 채용시 KFA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권장한다. 심판 확보차원에서는 초등 대회의 경우, 주심은 KFA심판을 활용하고 부심과 대기심은 생활축구심판, 지역 축구인과 체육교사를 교육 후 신규심판으로 활용한다. 4급 심판 등 별도의 단기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한다. 중·고교는 KFA 심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심판 양성을 병행한다.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일선 교사의 직무연수에 심판 강습회를 포함, 심판 자격증 취득 권장한다.

5) 우수선수 육성

현재처럼 소수정예의 선수만을 육성시키는 시스템으로는 장기적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한계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유소년 시절에는 모든 유소년들이 스포츠에 참여해서 유소년 모두가 운동선수로 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야구 및 축구 저변이 확대된 가운데서 선발된 우수선수를 육성해야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된다. 프로팀 산하 유소년 야구 및 축구선수 육성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만이 엘리트 선수 육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6) 클럽제도의 활성화

스포츠클럽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초등부라는 개념이 없이, 거의 클럽화 된 상황이다. 선수는 학교 교과과정은 대부분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연습을 하며, 주말에 지역리그 경기를 한다.

유소년 클럽 팀의 등록을 확대시켜야 한다. 일본은 축구의 경우는 거의 100% 클럽화 된 상황이다. 전국 대회는 방학에 개최되는 1개 대회가 전부다. 중등부도 중학교 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1개, 클럽 팀이 참가하는 전국 대회가 1개 그리고 학교 팀과 클럽 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가 1개 정도이다. 고등부는 일본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두 개 대회가 추가될 뿐이다. 일본의 학교 팀과 클럽 팀 간 실력을 보면 중등부는 클럽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고등부는 학교 팀이 70% 이상 상위권에 입상한다(김중 등, 2007).

7) 체육특기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앞으로는 초·중·고 진학시에 선수생활 한 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대학 진학시에도 특기자들이나 선수경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입시제도에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학원스포츠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

8) 야구 및 축구 관련기관들의 행·재정적 지원 확보

정부, 지자체, 교육청, 야구 및 축구 관련기관은 유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KBO, 대한축구협회, 프로구단, 선수, 팬, 학교, 학부모, 동호인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소년 야구 및 축구 발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9) 유소년 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클럽, 대학, 지방체육회,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앞으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게 되면 직장마다 야구 및 축구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취업 시에 야구 및 축구선수 경력이 도움이 되므로 좋은 직장도 구하고 선수로도 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 및 프로구단의 유소년 팀 육성 방안

1991년부터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몇몇 지역단위 별로 유소년야구단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이 때 설립된 유소년 야구팀의 이름은 해당 지역이름을 사용하는 팀이 대부분이다. 구리시, 김해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용산구, 하남시 등은 지역단체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은 개인(감독이나 단장)에 의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사회도 유소년 야구팀을 통해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다. 현재 프로구단은 유소년 육성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회원모집, 어린이 무료

입장, 지역유소년 야구용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시즌시 선수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유소년 야구 캠프 등이 있다. 유소년 야구를 프로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육성시켜야 한다.

현재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 축구단과 중·고팀을 육성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학원체육정상화 방안으로 인한 공부하고 운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못하면 전체적인 축구실력이 하향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소년 축구단을 육성해야한다.

또한 프로구단은 연고지 유소년 야구 및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리그의 완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스포츠단의 홍보효과 감소와 글로벌 비즈니스화 등 기업의 경제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단독기업운영에서 구단과 지자체의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컨소시엄 형태(지자체, 복수기업, 시민참여 등)로의 전환, 라이벌 창출, 대형신인 등장, 유소년육성시스템 구축, 신규참가 구단 확대 등이 필요하다.

11) 은퇴선수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축구는 차범근 축구교실 등 유명선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축구발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야구인들의 참여는 좀 미약한 것 같다. 유소년 야구 육성을 위해 일본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모임인 "ALL JAPAN BASEBALL FOUNDATION"에서 소년소녀 야구교실, 심판강습회, OB와의 경기, 청소년전전육성, 전국아마추어야구지도자강습회, 코치클리닉 등을 실시해 유소년 야구뿐만 아니라 심판 및 지도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프로·아마추어 OB 야구인의 친목 단체인 일구회와 백구회가 있다. 일본처럼 이러한 단체를 통해 정기적인 유소년 야구교실, 유소년 야구캠프, 지도자 강습회,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팀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스타급 선수 및 원로를 활용하고 명사클럽을 조직화 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김중 등, 2007).

12) 재원확보

김중 등(2007)은 유소년야구 발전을 위해 스포츠 토토 활용, 프로야구 연봉 총액의 1% 유소년 야구 지원, 프로야구 중계권료의 유소년 야구 분배, 방송국을 통한 유소년야구 재단 설립, 유소년 야구 유니폼 스폰서십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토도를 통한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산 베어스가 스포츠 토도(주)와 유소년 야구지원 '토토 사랑의 홈런존'을 운영하기로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두산 선수들이 잠실 홈경기시 좌측 외야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칠 때마다 100만원씩 적립, 시즌이 끝난 후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부중 재정이 열악한 팀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야구토도 판매수입 중 25%는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로 충당 되고 있으나, 2008년 3월에 전액 상환되는 관계로 향후 이 기금 중 일부(최소 2.5%, 연간 50억원 규모)는 야구발전, 특히 유소년 야구발전과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007년 한국프로야구 연봉총액은 348억원이다. 현재 신인선수의 계약금 중 10%(5%현물, 5%현금)는 구단에서 선수의 출신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 처럼, 선수 연봉총액의 1%를 유소년 야구지원으로 각 구단이 각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계권 수입 중 10%로 정도는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축구 또한 유소년 축구육성에 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한다. 전체 예산 64억 9천 3백만원 중 ① 프로 유소년 시스템 운영지원 13억 8백만원, ② 초·중·고 학원축구리그전환사업 12억 7천만원, ③ 축구 교재 및 동영상 제작 7억원, ④ 클럽축구리그 대회 활성화 5억 7천만원, ⑤ 유소년 상비군 육성 3억 2천 5백만원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축구협회, 2007).

13) 열성 팬 확보방안 강구

야구를 즐기려는 관중이 많아야 야구가 발전한다. 일본의 유소년 야구팀은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팀의 20배(약 4천5백여 팀)으로 이들 팀 소속 야구선수만 하더라도 10만명에 이른다. 고등학교 야구팀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팀의 9배에 이르는 450개나 된다. 2006년에 일본프로야구를 찾은 관중이 총 2천만여명(센트럴리그 1천2백만 명, 퍼시픽리그 8백만 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 약 5백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8월이 되면 전국고등학교야구선수권대회, 일명 '고시엔(甲子園)'대회가 열린다. 지역예선을 통과한 49개 팀이 고시엔구장에서 경기하며,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다. 게다가 NHK TV가 전 경기를 생중계를 한다. 또한 고시엔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구단 한신은 한 달 가까이 이 대회로 인해 구장을 양보한다. 유소년 야구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일본 고교야구 활성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김중 등, 2007).

14) 연식야구 활성화 및 티볼 프로그램을 통한 저변확대

일본의 유소년 야구 선수들은 연식야구를 먼저 하면서 점차 정규 야구공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간다. 어릴 때는 먼저 부드러운 공을 사용해서 야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일구회에서 제작한 연식야구공(안전 야구공)은 표면에 실밥도 있고 인조가죽의 질감도 실제 야구공과 비슷해서 야구와 똑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하여 위험성이 없어 야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티볼은 쉽고 안전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야구형 뉴스포츠이다. 미국에서는 유아와 저학년, 일본에서는 초등학교과정과 생활체육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등학교가 5700여개, 중학교가 3000여개, 고등학교가 2200여개가 있다. 과거 3년 동안 한국티볼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000여 학교에 티볼용구를 보급하고 강습회를 열었으며, 추후에도, 초·중등학교 교원 티볼 강습회 개최, 용품보급, 대회개최, 교사 직무연수 실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김종 등, 2007).

15) '아카데미 하우스' 설립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방안

미국의 '아카데미 하우스' 설립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야구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된 RBI '저소득층을 위한 야구 진흥 프로그램'은 MLB 커미셔너가 운영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의 190개 도시에서 13세-18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유소년리그(야구 및 소프트볼)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 12만 명에 이르는 유소년들이 유소년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MLB는 한 개 이상의 유소년리그를 운영하는 도시에 5천 내지 1만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메이저리그 청소년 아카데미는 10-15세 유소년들에게 평일 방과 후와 토요일 하루 동안 연중 무료로 야구와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MLB는 아카데미의 건설비 3백만 달러와 운영비 1백만 달러를 중앙예산안에 편성해 두었으며, 로스엔젤레스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미국 전역에 아카데미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베네수엘라의 야구 아카데미의 수는 40개가 넘고 있다. 아카데미를 통해 드래프트 1라운드에게 들어가는 그 비용을 투자하여 이제는 수십 명의 유망주를 메이저리그 팀에게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종 등, 2007).

16) 미디어활용

티볼/유소년 야구 프로그램 제작, 야구와 축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유소년 야구 및 축구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유소년 야구 및 축구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미디어 노출을 통

해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체계 구축

대학원생, 체육전공 학생,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체육 퇴직교사 및 선수출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탐문·발굴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지도자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이나 유관기관에 위탁해서 지도자교육의 활성화를 꾀한다. 대학 야구지도자학과 및 축구지도자학과에 위탁해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지도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한다.

승리보다는 인성 및 교육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시킨다.

IV. 논 의

학업과 운동 중 택일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부담, 저출산 현상 등으로 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반면 전문선수가 아닌 스포츠를 즐기려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현재의 학원체육 정책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중 야구 및 축구 두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안으로는 대회방식 제도개선을 통한 정상수업 강화, 시설인프라 확충, 저변확대,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 클럽제도의 활성화, 체육특기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관련기관들의 행·재정적 지원 확보, 관련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 및 프로구단의 유소년 팀 육성방안, 은퇴선수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재원확보, 열성 팬 확보방안 강구, 연식야구 활성화 및 티볼 프로그램을 통한 저변확대, '아카데미 하우스' 설립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방안, 미디어활용,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첫째, 두 인기종목인 야구, 축구 스포츠 클럽의 정착화를 통해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토너먼트 시합을 없애고 지역리그를 활성화 시키면, 정규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로 건설한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사회진출 시 존경받고 인정받는 스포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학생선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 전국대회 지방 원정에 따른 학생선수 학부모의 과다지출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2008)에 따르면 연간 65억원 비용 절감 효과(초중고 학원축구부 521팀 기준)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학생선수 1인당 연간 절감비용은 초등학교 47.5만원, 중학교 47.2만원, 고등학교 75.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즐기는 축구 문화를 통한 학교운동부 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유소년클럽 소속 선수의 참여확대로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회 성적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즐겁고 창의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축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야구·축구뿐만 아니라 국내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로 스포츠클럽 운영체제는 현재의 체제 보다 좀 더 나은 구체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다양한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전국의 야구와 축구 활성화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적 효과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생 1인 1실기를 제도화하여 내신 성적에 반영될 때 학교체육과 과외체육활동의 자연스런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

즉,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교육적인 면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홈-어웨이 경기를 통해 건강

하고 건전한 학교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자유로운 참여와 응원을 통해 애교심을 배양하고 지역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며, 스포츠를 통한 우의와 패어플레이를 배움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39개 시·군·구 단위의 잔디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고 경제적 인프라 구성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육성을 꾀할 수 있다. 장래가 불확실한 현재의 선수육성 상황을 잘 개선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 리그전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기경험 확대와 기본기 강화, 기술향상이 가능해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도자 자질에 관한 문제, 지도자 및 심판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우수지도자를 육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구 및 축구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설 인프라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야구 및 축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그리고 시설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필요하다.

특히 경기장 시설 확충은 스포츠의 생활화, 생활체육 발전, 국민보건, 복지향상 및 국제화 대처에 필수적이고, 단순경기가 아닌 스포츠복지로서의 공감대 형성되어야 하며, 지자체 투자에 대한 법적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스포츠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소년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종목별 유소년 스포츠클럽 형성에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축구를 선도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운영성적을 평가하여 다른 종목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08).

• 참고문헌 •

- 강신복(2003). 학원 스포츠의 개혁, 의식 전환과 제도 개선.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4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5-18.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2008). 학교 축구활성화 사업추진계획(안) -초·중·고 축구 전국대회 폐지 및 지역리그제 전환- 11월 11일.
- 김중, 이광환, 정원동, 박기철, 박철호, 손환, 전용배, 이태일 (2007). 유소년야구발전방안. (사)한국야구발전연구원 보고서.
- 김홍남(2003). 독일 축구클럽의 청소년 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사례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4월8 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37-42.
- 대한축구협회(2004). 축구문화와 KFA 유소년 축구발전전략 (안) : 유소년 클럽 시스템의 정확을 통한 양과 질의 확대. 대한축구협회(2006). 유소년축구발전세미나. 그랜드힐튼호텔 9월 12일.
- 류태호(2003). 학교체육의 위기와 대처 방안(pp.23-32). 인천 스포츠아카데미, 학술세미나자료집.
- 박정근(2003). 학원 스포츠 경기의 대안.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4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43-54.
- 박정근(2004). 학원 스포츠의 개혁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 코칭능력개발지, 6(2), 89-110.
- 서울특별시교육청(1996). 2000년대 세계화에 대비하는 학교 체육. 학교체육 장학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광환(2006). 한국 유소년야구 현황과악 및 육성방안에 관한 보고서. KBO.
- 조선일보(2008). 학교체육 세미나. 11월 22일 24. 한국 유소년야구 및 축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An Investigation on Development of Korean Youth Baseball and Soccer

Park, Jeong-K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Korean youth baseball and soccer.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youth baseball and soccer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rovides developmental guidelines. This study consisted of 20 people; 2 coaches, 2 association staff members, 2 local education officers, 2 athletes and 2 parents, from both the soccer and baseball perspectives. The analyzed data consisted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in-depth interviews, team observations, literature reviews, and secondary sources. Developmental guidelin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ystem change, facility infrastructure, broadening sports participation, the growth of capable coaches and athletes, the creation of the club system, university entrance selection guidelin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development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pport provided by local government and professional teams, the positive participation of retired players, financial acquirement, the attainment of loyal fans, soft-baseball and T-ball program creation, benchmarking for academy houses, media utilization, and volunteer management systems.

Key Words : youth, developmental guidelines, club sports, local league, academy house, T-ball

접 수 일 : 2009. 5. 29

게재확정일 : 2009. 8. 18